

조선후기 여성의 가채(加髻)와 수식(首飾)장신구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송연진 · 이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Fashion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ness of Woman's Gache And Hair Ornament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Yeon-Jin Song · Youn-Hee Lee⁺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6. 5. 26. 접수; 6. 30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cus on clothing design's practical uses of the superior esthetic elements that can be found among the East's representations,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Korean elements found in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Era's women's Gache and decorative personal ornamentation's moulded features. This has been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ll eight pieces,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hosun Dynasty women's Gache and ornamentation are in close relation to the general flow of society at the time. Gache and personal ornamentation was not just a matter of beauty consciousness, but is permeated with then-mainstream society's culture, the results of an attempt to display a Korean appearance. Secondly, the desirability of the Chosun women's hair was expressed through Gache, and through the exceptional brilliance of a diversity of embroidered color tones, braided as though creating Dare. Using this technique in clothing, a new image was created. Thirdly, the outstanding beauty of personal ornamentation's mouldings was used while creating new clothing compositions. The beauty felt through the Chosun women's personal ornamentation can also be felt through today's clothing. More than merely practical, this beauty also brings one closer to Korea and Korean past.

Key Words: Women's gache(여자가채), Hair ornament(헤어장식), Korean appearance(한국인 외양)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11-224-9278, Fax. +82-2-2297-1190
E-mail : yiyhee@hanyang.ac.kr

I. 서론

동양의 문화는 과거 유럽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동양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패션 트렌드로서 오리엔탈리즘이 미적요소로 등장되고 재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말하는데²⁾, 오리엔탈리즘이 학계에 관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Edward W. Said(1935~)가 자신의 저서에서 'Orientalism'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과거 동양은 유럽에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 문화의 호적수였고 서양의 문명에 비하여 하위의 것으로 취급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였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가 그 어원으로 "일출, 해가 뜨는 방향, 동방의"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을 오리엔트(Orient)라 불렀고, 그 반대쪽 서방을 옥시덴스(Occidens)라 불렀다. 그러나 동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범위는 점점 넓어져 터키 동쪽의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하고 있다.³⁾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동양의 가치관,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 영향력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패션 트렌드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⁴⁾ 이에 본 연구는 한류문화 열풍의 중심에 있으며, 동양의 미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관련하여 한국 고유의 정서가 적용된 조선 후기 여성 수식(首飾)의 장식적 요소 즉, 가체와 떨잠의 조형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가체의 형태는 후기로 갈수록 더욱 크고, 장식적으로 되었으며 다양한 머리모양의 출현과 더불어 수식장신구의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후기 여성 수식(首

飾) 즉, 가체와 떨잠의 장식적 요소를 활용한 의상디자인을 연구를 통하여 가체의 땅기 기법을 활용한 브레이드와 떨잠을 활용한 장신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식 표현을 모색하며 한국적 특성을 활용한 복식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된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학술지, 패션 매거진, 신문, 인터넷, 실물 등의 자료를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상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조선 후기 가체에 관한 정의와 구성요소, 유형 및 특징, 제작기법 등의 조사와 조선 후기 떨잠에 관한 정의와 종류, 조형적 특성, 떨잠의 제작기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 후기 여성의 가체(加髻)에 관한 고찰

1) 가체(加髻)의 정의

'가체(加髻)'의 사전적 의미는 채색 비단 또는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로 여자가 성장(盛粧)할 때에 머리술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 넣는 단 머리를 말한다. 다래 또는 다리라고도 하나 표준어는 다리[月子]이다.⁵⁾ 그리고 한자로는 '체(髻)'라고 하고 '월자[月子]'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의 가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수준 있는 일부의 계층의 소비취향을 상징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지닌 까닭에 상품을 소유하고 이미지를 보유함으로써 동일한 문화적 집단에 소속 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와 여기에 사회적 차별을 획득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작용하였다.

또한 양반과 사대부 및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양인과 중인의 계급 및 기녀 등 사회 집단 간에 쌍방향적인 모방이 이루어 졌으며, 동시에 조선 후기의 문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제력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들조차도 가체 유행에 편승하려는 심리가 작용되어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체 사치의 유행은 어

던 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시대적 조류와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 계급 간에 상호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확산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⁶⁾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복식의 일부인 머리양식과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은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가채는 부녀자 수식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사람들이 고계(高髻)를 좋아하고 사방의 높이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리를 더하여 얹은머리를 높게 한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에 의해 쓰여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7에 의하면 “부잣집에서는 머리를 치장하는데 무려 7~8만의 비용을 들여 널찍하게 서린 다리를 곁으로 돌려서 타마(駝馬)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옹황판(雄黃版)을 장식하여 법랑잠(瑠璃簪)과 진주수(眞珠繡)로 그 무게를 더하여 거의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가장이 그것을 금하지 못하고, 부녀자들은 더욱 사치가 늘어 행여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⁸⁾.

영조 때 가채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응하는 가채금지령을 내려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예상 할 때 꾸미는 머리모양에 가채가 계속 사용되는 등 금제령의 완전 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조 때 다시 사대부의 처첩과 어염의 부녀는 가채는 물론 본인의 머리에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은 금지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이 머리를 얹는 것은 허용하되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채의 유행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더욱 크고, 장식적으로 되었고 조정에서 여염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가채의 유행은 사회문제점을 낳는 동시에 다양한 머리모양의 출연과 더불어 수식장신구의 발전을 가져왔다.

2) 가채의 유형 및 특징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머리양식은 기혼녀는 얹은머리, 미혼녀는 땅은 머리의 풍습이 내려왔다. 이

러한 풍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과대한 가채 사용으로 조정에서 부녀자들의 머리모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변천을 거듭하면서 신분별 또는 의례용 등에 따라 다양한 머리모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가채를 얹고 장식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대수, 거두미, 어유미, 얹은머리, 첩지머리, 조짐머리, 새양머리, 땅은머리,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대수(大首)’<그림1>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과 병행하던 머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과대하고 화려했다. 대수의 양식은 머리 정상은 고계를 만들고 그 밑으로는 좌우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A자 형으로 펼쳐진다. 뒷부분도 앞과 같으나 중간에 종(縱)으로 머리를 뚫고 그 위에 비단 댕기를 묶고 있다. 수식으로는 고계 정상에 적관을 하고, 비녀는 7개를 꽂았는데 고계에 하나씩 칠보잠을 꽂고 맞은편에 하나로 고정 시켰으며 이마에 둥글게 내린 머리 사이로 좌우에 용잠을 꽂고 어깨에 새 날개와 같이 펼친 머리의 좌우에는 봉잠을 각기 하나씩 꽂았다. 이와 같이 대수는 가채 자체로도 거대 하였지만 그것에 금옥폐식(金玉貝飾)의 비녀와 뿔잠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으므로 당대에는 보계라고도 했다.⁹⁾ 이것은 오늘날의 전체 가발과 같이 전체적인 머리 형태를 만들어 여러 개의 비녀와 뿔잠으로 장식하여 직접 머리에 쓰도록 만든 가발이다. 그러므로 대수의 특징은 조선시대의 다른 예장용 머리가 여러 개의 다리를 두르거나 덧얹어 머리모양을 한 것과 구별된다.

둘째는 거두미(巨頭味)<그림2>로 큰머리, 떠구지머리라고도 불렀다. 큰머리는 비(妃), 공주, 옹주, 당상관 부인, 지밀상궁만 할 수 있었다. 왕비 공주·옹주는 머리 중심과 양편에 장식으로 뿔잠을 꽂았다. 수식으로 어여머리위에 떠구지를 얹고 비녀와 댕기로 고정하는 것이다. 떠구지는 처음에는 머리카락으로 된 다리로 뿔아 만들었는데, 무겁고 사치해서 조선 정조(正祖)때 가발 사용을 금했다.¹⁰⁾

셋째는 어유미(於由味)이다<그림3>. 어유미는 어여미(於汝味)라고도 했으며, 외명부가 상시 착

용하였던 것으로 왕녀로서는 출가한 공주·옹주 종친으로는 부부인, 군부인등과 문무관의 처로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 등 남편의 직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들이 꾸미던 두발양식이다. 어여머리는 영조 때에는 어유미가 주로 외명부의 의식용으로 쓰였는데, 조선후기 및 조선 말기에 떠구지머리와 어유미는 큰 구별 없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도 잔치와 혼례 때에는 어유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어유미 양식은 가리마 위에 첩지를 매고 다시 그 위에 어염족두리를 쓰며 두 줄로 땀은 가체를 머리모양대로 둥글게 하여 어염족두리에 얹으며 수식으로는 옥판 등에 각종 보석과 떨철을 화잠내지는 떨반자로 꾸몄다.¹¹⁾

넷째, 엷은머리<그림4>는 일명 ‘트레머리’라고도 하고 큰머리 모양을 축소시킨 형태이다. 엷은머리의 양식은 앞 가리마를 해주고 뒤에서 묶어준 다음 첩지를 매어주고 머리 뒤에서 본발을 붙인 밑에 다리를 대어준다. 귀 앞으로 다리를 대어 귀를 가려주고 첩지위로 올라가서 엷갈려 머리를 돌려 처음 돌린 머리위로 엷어주며 내려오고 이렇게 세 바퀴 돌려 준 후 우측 머리끝을 다리 속으로 넣어 주고 좌측 머리끝도 보이지 않게 머릿속으로 넣어 마무리 해준다. 뒷머리 부분에 매개댕기를 달아주고 그 위에 떨잠을 수식해 준다.¹²⁾

다섯째, 첩지머리<그림5>는 예장할 때의 머리로서, 제도에 따르는 계급표시이기도 하였다. 첩지머리의 양식은 가는 다리 중간에 천을 대고 그 위에 첩지를 엷어 양쪽 끝과 중간 세 곳을 적색실로 떠서 고정시키며 가리마 위에 올려놓고 느리게 양쪽으로 땀아 뒤에서 머리와 함께 묶어 쪽을 찢 머리모양이다.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 같은 것을 쓸 때에 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첩지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신분의 상하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왕비용 첩지는 도금한 봉황 모양의 봉첩지였으며, 내명부, 외명부는 도금이나 은 또는 흑각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사용했다. 궁중에서는 평상시에 사용했으며, 일반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예를 갖추는 때에

사용했다.¹³⁾

여섯째, 쪽머리이다<그림6>. 결혼한 부인의 일반적인 머리모양이다. 이마 중심에서 가르마를 타 양쪽으로 곱게 빗어 뒤로 넘겨 한데 모아 검정댕기로 묶고 한 가닥으로 땀아 끝에 자주색 조립댕기를 드리고 쪽을 찢 후 비녀로 고정시키는 형태이다.

일곱째, 새앙머리<그림7>는 조선시대 미혼녀들이 하던 머리모양이다. 조선후기에는 궁중에서 지밀·침방·수방 소속인 아기나인[內人]이 사용한 맨 머리 모양이었으며 이를 생머리라고도 하였다. 머리털을 2갈래로 갈라서 땀아 이것을 각각 2개로 틀어 올려 뒤통수 밑에 나란히 세워서 묶으면 2개의 가름한 쪽 같다. 이 위에 넓은 자주 땀기를 엉덩이까지 늘어뜨렸다. 이 새앙머리에는 봉(鳳)·나비 등이 조각된 뒤꽂이를 꽂고, 땀기 끝에도 석용황(石雄黃)등을 달아 장식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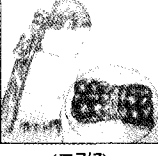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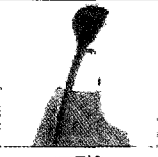
여덟째, 땀은 머리이다<그림8>. 땀은 머리는 ‘댕기머리’라고도 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의 머리로 머리를 앞이마의 한가운데서 가르마를 타서 좌우로 갈라, 양쪽 귀 위에서 귀 밑머리를 땀아 뒤로 모으고, 3가닥으로 갈라서 서로 엷걸어 땀아 하나로 엷어 늘어뜨린 것으로 모양이다 끝에는 땀기를 매었으며, 땀기의 빗갈은 처녀는 홍색, 총각은 검정으로 하였다.¹⁵⁾

아홉째는 조짐머리로 조선시대 반가에서 의식이나 외명부가 궁중 출입 시에 하던 머리 형식이다. 조짐머리의 양식은 머리정상에 가는 다리에 첩지를 매고 나머지 머리는 좌우로 갈라 밑에서 묶고 다리를 넣어 땀아 가지고 비비틀어 소라겹질 같은 쪽을 찢 후 비녀를 꽂고 잠으로 장식하는 머리 형태이다. 쪽의 크기는 젊은이들은 크고, 노인들은 작았다고 한다. 잠 또한 계절에 따라 달았는데, 10월·정월에는 도금용잠을, 2월·4월에는 매죽잠, 은목 단잠을, 5월부터는 민옥잠, 둥근 옥판에 진주를 박은 흥난장옥 반자를 꽂았다.¹⁶⁾ 이와 같은 가체의 유형 및 특징을 <표 1>로 구성하였다.

2. 조선후기 떨잠에 관한 고찰

1) 땃잡의 정의와 종류

<표1> 가채의 유형 및 특징¹⁾

유형	형태	특징	상징성
대수 (大首)	 <그림1>	삼각형으로 빗어 양끝에 봉이 조각된 비녀를 꽂고, 땃머리를 두갈래로 땡아 땡기를 늘임	왕비의 대례복 차림에 행한 머리 모양
거두미 (巨頭味)	 <그림2>	가리마 위에 첩지를 매고 어염 족두리를 올려놓고 다리 꼭지를 땡아 땃머리에서 좌우로 갈라 어염족두리 위에 고정	궁중에서 품계를 가진 귀인 등 내명부와 부녀가 사용한 머리모양
어여미 (於汝美) 어유미 (於由味)	 <그림3>	가리마 위에 첩지를 매고 그 위에 어염 족두리를 씌	외명부가 하던 머리모양
엷은머리	 <그림4>	앞머리 가리두개의 땃 머리를 모아 이마 가리마 쪽에서 또아리 모양으로 둥글게 틀고 그 밑으로 두개의 머리를 모아 왼쪽으로 내려 땃 머리 한 개를 크게 고를 만들어 귀와 볼에 덮게 하고, 계속 오른쪽으로 돌려 땡기를 드림	일반적으로 부녀자의 머리모양
첩지머리	 <그림5>	이마 중앙에 첩지를 대고 첩지의 양쪽 머리를 좌우 귀 뒤로 돌려 쪽머리 또는 어여머리와 함께 묶음	내·외명부가 하던 머리모양
쪽머리	 <그림6>	이마 중심에 가리마를 타고 빗어 넘긴 머리를 검정땡기로 묶어 한 가닥으로 땡아 끝에 자주색 조립땡기를 들이고 쪽을 진 후 비녀로 고정	결혼한 부녀의자의 보편적인 머리모양
새앙머리	 <그림7>	다리 한 쌍을 땡아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 머리 뒤에 둥그렇게 놓고 자주색 땡기를 맴	아기내인의 머리모양
땡은머리	 <그림8>	땡아서 뒤로 한 가닥 길게 늘임	미혼녀의 머리모양

떨잠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장식이며 장식비녀가 커진 것으로 추측된다. 잠(簪)의 한 종류로서 조선시대 예장 최고의 여자 수식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여자 수식품으로 가장 아름다운 동적 장식을 보인다. 옥판위에서 노리개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려서 일명 “떨잠반자”라고도 하며, 머리에 꽂으면 잠 전체가 파르르 떨리고 잠에 장식하였던 모든 옥이나 세워둔 장식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떨잠이 된 것이다.¹⁷⁾ 이는 금사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든 정교한 스프링 끝에 꽃, 새 장식을 달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식이 저절로 떨리는 것으로 화려함을 더해준다.

궁중의 대소 의식이 있을 때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계급의 부녀자들 즉 내명부에 한하여 대수떠구지머리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머리 앞부분에 꽂는 것은 선 봉잠 이라고 하고 좌우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⁸⁾ 특히 대례복인 적외와 조화를 이룬 대수의 머리 형태에서 수식의 다양한 미적 표현을 집약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영락의 떨림들은 장식 대상이 왕이나 왕족들의 상류계급에만 국한되어 일반인들과 외견상 구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떨잠은 금·는·옥 등의 재료로 제작되어지며 그 종류로는 둥근 옥판, 나비문, 화문 칠보장식에 공작석, 산호, 진주, 떨새를 부착하여 좌우에 쌍으로 꽂는 떨잠 둥근 모양 떨잠<그림9>, 네모진 옥판에 칠보로 꾸민 댓잎 장식의 사각떨잠<그림10>, 꽃잎모양을 조각한 옥판에 칠보로 꽃잎장식을 한 꽃모양 떨잠<그림11>, 어여머리의 앞 중앙에 꽂는 선봉잠으로 나비형의 금판에 진주를 박아 장식이 매우 호화로운 나비모양 떨잠<그림12> 등이 있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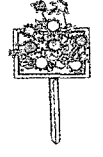


떨잠의 형태는 장식부와 첨부로 나누어지며 <그림13>, 장식부에는 화려한 장식이 되었고 첨부에는 머리에 꽂을 수 있게 좁아진다. 떨잠의 양식은 원형, 꽃모양, 각형, 접형으로 장식부의 형태에 따라 나뉘지만 드물게 비녀와 혼합된 경우도 있다.

각각의 모양의 장식판을 만들고 꽃이를 연결시켜 머리에 떨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름

5cm 정도 크기의 투각된 장식판을 필요로 했으며, 주로 원형, 각(角)형, 나비 형 등을 옥이나 은으로 제작 하였다. 그 위에 진주, 산호 비취, 청강석, 칠보 등을 거미발형태로 물리고 가는 은사로 용수철을 만들어 끝부분을 벌, 나비, 봉(鳳)모양의 떨새 등을 매달았다. 그 주위에 진주, 산호, 공작석을 순서대로 물렸다. 사이사이에 장식된 이름 모를 꽃잎과 잎 넝쿨 대나무 잎은 점취법(點翠法)으로 장식되었다. 점취법(點翠法)은 어교(魚膠)로 은판에 붙이는 것이다. 용수철기둥은 대개 3·5개 이며 길이는 4~7cm정도였다. 그리고 어여머리나 큰 머리 등에 장식 할 수 있도록 옥판 밑에 동(銅)으로 만든 납작하고 뾰족한 칼 모양의 꽃이를 부착하였다.

떨잠도 계절에 따라 꽂았는데 정월원단(正月元旦) 문안(問安)때는 녹색당의(唐衣)에 스란치마를 입고 삼작노리개를 차며 니사봉(泥薩鳳)떨잠

<표2> 떨잠의 종류 및 특징

수식의 명칭	종류	특징
원형떨잠	 <그림9>	둥근 옥판, 나비문, 화문 칠보장식, 공작석, 산호, 진주, 떨새부착 좌우에 쌍으로 꽂는 떨잠
사각떨잠	 <그림10>	네모진 옥판 칠보로 꾸민 댓잎 장식
꽃 모양 떨잠	 <그림11>	꽃잎모양을 조각한 옥판 칠보로 꽃잎장식
나비형 떨잠	 <그림12>	나비형의 금판에 진주를 박아 장식 매우 호화로운 어여머리의 앞 중앙에 꽂는 선봉잠

자료출처 :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외

이나 옥모란 뿔잠을 꿸고 갔었다.¹⁹⁾ 특히 나비뿔잠은 중전만 제대로 꿸고 나머지 후궁들은 거꾸로 꿸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 뿔잠의 조형적 특성

뿔잠은 동식물의 아름다운 형태와 적·백·녹 3색의 조화를 함께 갖춘 수식품으로 그 조형적 특성은 문양과 색채를 들 수 있다. 뿔잠에 나타난 문양으로는 동물문, 식물문, 문자문 등 여러 문양이 있다. 동물문은 여성적인 문양이 많으며 도안화 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동물문은 뿔새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문에는 봉황, 나비, 벌, 잠자리를 사용하였다. 봉황은 불사조라고도 하여 권력을 나타내는 왕비에게 많이 사용되어 여성의 상징과 함께 뿔새 장식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나비는 장수를 상징하였다. 식물문에는 국화, 연화, 매화, 당초, 죽엽, 모란잎 등이 있다. 식물문은 주로 뿔새의 장식 보다는 판에 투각되거나 보석 밑받침이나 연결 고리로 사용하였다. 특히 모란은 부귀를 상징 하였다. 문자문에는 문자의 상징적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으로 표현하여 그 바탕에 양각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뿔잠에 나타난 문양들은 대개 권력, 장수, 부귀, 다남 등의 조선시대 여인들의 염원과 바램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다. 생활공간에 나타난 문양은 사용한 사람의 감정이입으로 각 시대나 민족고유의 조형양식을 성립한다. 이처럼 문양은 한 시대의 양식을 창조하고 그 형은 다음세대로 계승 되어가면서 전통으로 남거나 점차 변화하여가기도 한다.²⁰⁾

뿔잠에 나타난 색상으로는 옥색, 백색, 황금색, 다홍색, 인주 색, 초록색, 청록색, 하늘색, 파란색, 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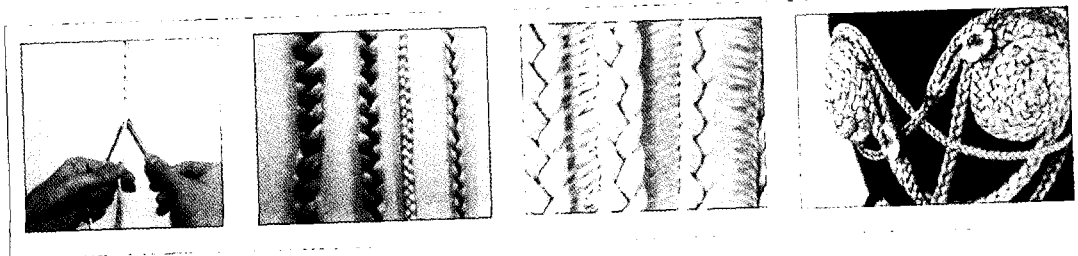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옥색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뿔잠의 장식부가 옥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이며 도금과 칠보의 도입으로 황금색과 하늘색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색채는 시각적 인식의 근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에 깊이 관여한다. 색채는 복식의 형상과 함께 그 형상을 구체화하며, 의복에 인상을 부여하고 착용자의 취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²¹⁾ 백의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성을 볼 때 뿔잠에 사용된 다채색의 조화와 강한 보색대비는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궁중의 왕비이하 상궁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II. 작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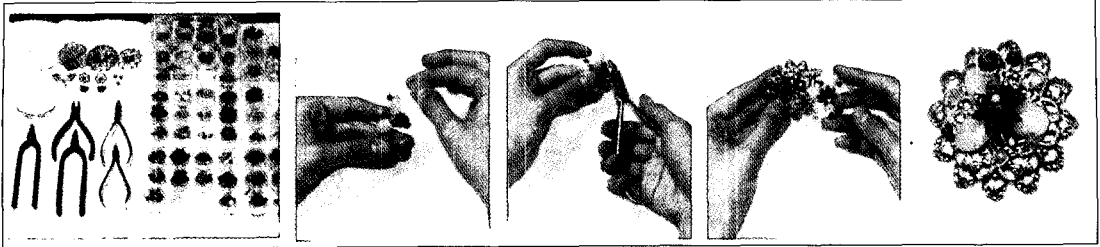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조선후기 여성들의 가체와 수식 장신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을 하였으며, 조선후기 여성 수식의 장식적 요소 중 가체와 뿔잠의 조형적 아름다움의 요소 즉, 색, 형태, 질감, 이미지 등을 응용하였다. 작품제작은 의상과 장신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가체의 머리 모양을 이루기 전의 상태인 다래의 형태와 다래의 제작기법인 땀기 기법에서 주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식 장신구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의상에 접목할 수 있는 장신구를 제작하여 조선 후기 여인의 가체와 수식 장신구가 어우러져 하나의 머리 형태를 완성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 시 색상상에 있어 가체와 수식 장신구에서 오는 흑색, 옥색, 자색, 회색, 미색, 황색 계열을



<그림14> 인견사를 이용한 다래형태 만들기 과정



〈그림15〉 뿔잠형태를 응용한 장신구 만들기 과정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작품의 통일성을 위해 각 작품의 색상을 오버랩하여 사용하였다. 소재는 질감이 강한 소재를 배제하고 주제 표현에 적합한 실크와 실크 시폰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품의 아이템 또한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와 투피스로 구성하였다. 장신구 제작 기법으로는 비드워크 기법을 응용하여 조선 여인의 수식장신구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작품 제작방법으로는 조선 여인의 머리 카락의 탐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이면서도 광택이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다양한 색상의 인견사를 선택하였다. 인견사를 물레로 감은 후 조선시대 긴 머리 다발로 다래를 만들 듯이 뿔았다. 또한 뿔은 형태가 아닌 머릿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니트 편기를 이용하였다. 니트 제작과정 시 씨실부분만을 남겨 두어서 머릿결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머리가다 하나하나가 모여 머릿결을 이루는 모습을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수식(首飾) 장신구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의상에 접목할 수 있는 장신구를 제작하여 조선 후기 여인의 가체와 수식장신구가 어우러져 하나의 머리 형태를 완성했던 것을 표현 하였다. 따라서 옷과 장신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작품제작을 하였다. 장신구 제작방법으로는 조선 후기 수식(首飾) 장신구의 조형성을 재해석 하여 현대 의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와이어, 원석, 옥판, 금속판, 자개 등을 이용하여 비즈워크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2. 작품제작 및 해설

조선 여인의 머리카락의 탐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이면서도 광택이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다양한 색상의 인견사를 선택하며 다래를 만들 듯이

뿔았다. 뿔기 위해서는 실타래로 만들어진 인견사를 원하는 두께의 다발로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제작과정 중 물레를 도입은 인견사를 원하는 두께의 다발로 만드는 것을 편이하게 하여 다량으로 의상에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14).

여성 수식(首飾)의 장식적 요소 즉 가체와 뿔잠의 장식적 요소를 활용한 의상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조선후기 여성 수식(首飾)의 가체와 뿔잠이 조화되어 하나의 머리형태를 이루듯이 가체의 뿔기 기법을 활용한 브레이크와 뿔잠을 활용한 장신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식표현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뿔잠의 장식적 요소를 활용한 장신구를 제작 하였다.

장신구 제작에 필요한 재료로는 옥판, 금속판, 원석, 옥, 답수진주, 금속장식, 와이어, 플라이어, 핀셋, 접착제등을 필요로 하였다. 제작기법으로는 주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비즈워크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옥판이나 철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선 여인의 수식 장신구인 뿔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현대의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15).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정서가 적용된 조선후기 여성수식의 장식적 요소 즉 가체와 뿔잠의 조형적 특성의 우수성을 응용디자인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가체와 뿔잠을 응용하여 옷과 장신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3> 실물제작 및 설명 1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디자인				
디테일				
작품 설명	어머머리의 수식 장신구인 떨잠은 옥판 위에 여러 가지 보석류를 장식하기 위하여 가는 철사를 구부려 여러 선을 교차시키면서 곡선적이면서 화려한 조형적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조형성 중 특히 가는 철사를 구부려 아름답게 교차시킨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는 철사 대신 땅아놓은 브레이크를 이용하였다.	어머머리의 조형성과 장식적 요소인 가채와 떨잠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따라서 가채가 머리에 둘러진 모습을 형상화하여 상체의 가슴부위에 너비 2cm의 브레이크를 둥글게 말아 부착하여 표현하였다.	어머머리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에 있어서 조선 여인의 검은머리에서 오는 흑색과 어염쪽 두리 색상에서 오는 자색을 사용하였다. 소재는 검은색 인견사를 사용하여 어머머리를 올릴 때 사용하였던 다래 형태와 같이 비교적 굵게 땅아 광택이 나는 검은 다래를 연상케 하였다.	조선후기 여성의 띠구지머리에서 나비떨잠과 다리의 상태를 모티브로 하여 작품IV을 재구성하였다. 머리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땅아서 보충하였으며 또한 이를 풍성하게 올리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 사용하였었다. 본 디자인은 다리의 상태에서 조형적인 미를 착안하였다.

<표4> 실물제작 및 설명 II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디자인				
디테일				
작품설명	<p>어여머리의 뒷모습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인건사로 중간 정도의 두께로 땅아 가체를 표현하였다. 특히 뒤통수 부분의 곱게 빚어 내린 머릿결의 표현을 위하여 인건사를 합사하여 7GG의 수편기를 이용한 니트 상의를 제작하였다.</p> <p>편직시 2cm의 간격으로 씨실만을 남겨두어 머릿결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간격 사이사이에 땅은 브래이드를 달아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p>	<p>작품VI과 같이 어여머리의 뒷모습의 조형미를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인건사를 합사하여 7GG의 수편기로 니트를 제작하였으며, 3cm 또는 5cm 간격으로 수직기에서 씨실 부분만을 남겨 머릿결을 표현하였다. 또한 머릿결의 광택을 살리기 위하여 씨실 부분만 남겨진 간격을 약간 넓게 제작하였다. 니트의 자연스런 곡선미를 표현하였다.</p>	<p>어여머리의 조형미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어여머리를 완성하는 수식 장신구는 주로 멸잠을 이용하였다. 대체적으로 머리 중앙에는 나비멸잠(선봉잠)을, 얼굴 양옆에는 원형멸잠을 꽃아 장식하였다. 장신구에서는 와이어를 이용해 원석이 약간씩 흔들리게 제작하여 율동감을 주었다.</p>	<p>떠구지머리 형태에서는 실제 머리카락을 땅은 것과 목각에 검은 칠을 하여 가체처럼 만든 떠구지를 혼용하였다. 인조적인 느낌과 자연적인 느낌을 매치시키고자 하였다. 빚치기 뒷꽃이의 장식부분의 실루엣을 의상의 상체부분의 절개 라인에 응용하여 빚치기 뒷꽃이의 조형미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p>

첫째, 조선 후기 여인들의 가체와 수식 장신구인 딸잡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가체와 수식 장신구들은 조선여인들의 미의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스며있어 한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모티브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둘째, 조선 여인의 머리카락의 탐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이면서도 광택이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다양한 색상의 인견사를 선택하며 다래를 만들 듯이 뿔았다. 그리고 이를 의상에 응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셋째, 수식 장신구의 조형적 아름다움의 우수성을 의상에 재구성하여 응용하였다. 따라서 조선 여인의 수식 장신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현대의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 시 땅기 기법과 더불어 장신구 제작기법의 과정이 수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수공과정은 독특한 고부가 가치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주었으나 땅아 붙인 부분의 착용과 보관에 조심스러움을 요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소재를 이용하여 복식에 접목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동양 문화권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발맞추어 한국적인 모티브와 이미지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적 디자인도 대표적인 동양풍으로도 부각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므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모티브를 재발견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Said, Edward. W., 박홍규 역 (1997).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p.201.
- 2) 윤명자 (1991).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3) 이연순 (2004). 21세기 초 패션쇼를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4) 이재성 (1994).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속사, p.201.
- 5) 학원출판공사 (199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권 1*. 서울: 학원출판공사, p.246.
- 6) 박영미 (2002). 조선 후기 가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iii.
- 7)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조선 후기 실학파의 박학다식 사조의 대표주자인 오주 이규경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금의 각종 사물을 비롯하여 소위 경전과 명물도수에 전반에 걸쳐 변증을 가한 백과전서적인 저술.
- 8) 박영미 (2002). Op. cit., p.26.
- 9) 배정숙 (1967). *조선조 중후기 부녀 두발의 양식고찰: 아세아 양식연구*. 서울: 숙명여자 대학교, p.284.
- 10) Ibid., p.285.
- 11) 박영미 (2002). Op. cit., p.36.
- 12) Ibid., p.37.
- 13) Ibid., p.38.
- 14) Ibid., p.239.
- 15) Ibid., p.142.
- 16)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339.
- 17) 서지민 (1986). *장신구사*. 서울: 한국 장신구 연구원, pp.263-264.
- 18) 장숙환 (2002). *전통 장신구*. 서울: 대원사, p.56.
- 19) Ibid., p.57.
- 20) 조규화 (198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153.
- 21) 김태희 (1983). 움직임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